# 카즈야 떴다, 평창 가즈아!

#### 스페셜 캐스터로 평창 찾은 日 스타들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 등 올림픽 현장 중계 접하기 힘든 스타들…국내 팬들 '평창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국내의 제이팝(J-P OP) 팬들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다. 올림 픽과 제이팝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 지만, 유명 제이팝 가수가 일본 TV 중계팀의 스 페셜 캐스터 자격으로 방한하면서, 제이팝 팬들 의 관심이 평창으로 쏠리고 있다.

국내 제이팝팬의 관심을 얻는 주인공은 일본 의 대표 아이돌그룹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와 캇 툰의 카메나시 카즈야이다. 두 사람은 9일 열린 개막식을 포함해 일본선수의 메달 획득 가능성 이 높거나 화제성 높은 경기를 관전하며 현장의 열기를 일본 현지에 전하고 있다. 이들이 캐스터 로 발탁됐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알려졌지만 경 기장을 오가는 모습이나 중계 장면이 현지 방송 을 통해 공개된 것을 국내 팬들이 실시간으로 접 하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SNS나 제이팝 관련 블로그 등에서는 이들을 직접 보기 위해 경 기장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 을 수 있다.

를 보기 위해 열을 올리는 건 이들을 직접 볼 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캐스터로 방한한 일본 인기 아이돌그룹 아라시의 사쿠라이 쇼(맨 오른쪽). 사진출처 | 니혼TV 방송화면 캡처

있는 기회가 공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 이다. 올해 2월부터 이들의 소속사 측이 초상권 을 문제로 금지해왔던 제작발표회나 행사 현장 에서 찍은 사진을 일부 언론사에 한해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평소 이들의 모습은 사진으 로도 접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실제로 이들을 보 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국내 팬들은 언 제 또 생길지 모르는 이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 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다.

사쿠라이 쇼와 카메나시 카즈야가 속한 아라 시와 캇툰은 일본 연예계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 국내 팬들이 사쿠라이 쇼와 카메나시 카즈야 와 인지도를 지니고 있다. 사쿠라이 쇼는 '브레 인 아이돌'로 꼽힐 정도로 현재 니혼TV의 보도

프로그램 '뉴스 제로'를 진행하고 있다. 연예인 이지만 정치·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 쳐 지식을 뽐낸다. 올림픽 캐스터 경험은 2008년 베이징, 2010년 벤쿠버, 2012년 런던 2014년 소치, 2016년 리우, 2018 평창까지 모 두 6번째다. 그가 속한 아라시는 일본에서 현존 하는 최고 인기그룹으로, 소속사 선배이자 2016년 해체한 SMAP의 뒤를 잇는 국민 아이

카메나시 카즈야는 니혼TV의 정보프로그램 '고잉! 스포츠&뉴스'의 진행을 맡고 있다. 어린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한 카즈야는 방송 리포터 로도 활약하고 있다. 백솔미기자 bsm@donga.com

#### 평창 SNS

## "평창올림픽 선수님들도 파이팅입니다"



EXO 찬열(왼쪽)이 트랙스 제이와 함께 금메달을 들고 국가대표의 선전을 기원했다. 찬열은 16일 방영된 MBC '설 특집 2018 아육대'에 출연해 볼링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사진출처 | EXO 찬열 인스타그램

# 경기 티켓 없다면? 올림픽플라자・올림픽파크로

문화행사·전시회 등 올림픽 분위기 만끽 설 연휴 15만여명 넘게 다녀가 '인산인해' 방문객들 "입장권 구입 애먹어" 아쉬움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 았다. 지구촌 동계스포츠 특급 스타들의 수준 높 은 경기를 만끽하려는 팬들의 관심과 열기도 점 차 뜨겁다. 설 연휴(15~17일)는 피크였다. 금 메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각종 기록이 쏟아지 며 평창과 강릉 일원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환경 도 상당히 좋았다.

예기치 못한 강풍으로 경기 스케줄이 조정된 경우도 있으나 대회를 앞두고 대회조직위원회 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걱정시킨 한파가 주춤하고 기온이 올라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았다. 어지간한 입장권은 매진이었다. 주요 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티켓 부스에는 'SOLD O UT(매진)'이란 글귀가 자주 보였다. 사정이 그 렇다보니 암표상도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반드시 경기장에서만 올림픽 분위

기를 만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다른 루트를 활용하면 된다. 주요지 역 수송 몰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 쉽게 닿는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도 충분히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대회 개·폐막식을 책임진 평창올림픽스타디 움과 성화대를 중심으로 강원 대관령 횡계리의 넓은 부지에 조성된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는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회가 한창이다. 강원도 토 속음식과 세계 각국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공 간도 있고 올림픽 및 IOC 후원사 홍보관에서 이 색적인 체험도 할 수 있다.

강릉시 교동에 있는 올림픽파크는 평창 올림 픽플라자와 전반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좀더 밀 도가 있다. 무엇보다 스피드스케이팅장·아이스 아레나·하키센터·컬링센터 등 주요 경기장들과 인접해 지구촌 스포츠 이벤트의 분위기를 보다 가까이 실감할 수 있다.

특히 국적을 불문한 수만 관중이 한데 섞여 기념사진을 찍고 함께 목청껏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은 진풍경이다. 대회 특성상 하계올림픽에

비해 내국인 비율이 높지만 예상보다 많은 외국 인들이 방문해 주최 측을 흐뭇하게 하고 있다. 구정 당일(16일)과 17일, 올림픽플라자와 올림 픽파크를 찾은 이들만 15만여 명을 훌쩍 넘겼다 는 후문이다.

당초 평창 올림픽플라자와 강릉 올림픽파크 입장권은 2000원으로 책정(경기티켓 소지자는 무료)됐으나 현재 강릉에서만 현장에서 티켓구 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루 일정 인원이 초과되면 판매가 중지된다. 관람객들에게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설 연 휴 동안 티켓부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에서 차례 를 기다리다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분노한 사 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이 심심치 않게 보였다. 불과 몇 분 차이로 입장 하지 못한 이들이 화를 내며 발걸음을 돌리는 장 면 또한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다.

연휴를 맞이해 가족과 함께 2곳을 모두 방문 한 박소진(37·회사원) 씨는 "다양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줬 다. 다만, 입장시간과 티켓구입 등의 공지가 뚜 렷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대회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확인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평창·강릉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댓글 올림픽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와 알파 인스키에 동시 출전해 깜짝 우승한 체코의 에스터 레데츠카에 대한 누리꾼들의 찬사와 성원이 쇄도했다. 오늘의 댓글올림픽 'HO T'으로 선정한다.

반면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메달을 보탠 서이라는 댓글 폭탄을 맞아야 했다. 중 국은 물론 한국 누리꾼들까지 나서서 비난 의 화살을 쏟아냈다. 물론 '근거없는 비난이 다', '억울하다'라는 시선도 많다. 'COLD' 로 선정하게 되어 안타깝다.

# ●HOT: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레데츠카

#엄청납니다~~^^인터뷰 때도 참 즐겁게 해주신 분~~(Du\*\*\*\*)

#이런 이변 너무 좋다 스포츠의 묘미(et\*\*\*

#부업이라던데 멋져.(ㄱ\*)

#체코 국가대표 에스터 레데츠카 원래 주종 목이 스노보드고 스키도 좋아해서 그냥 참 가한건데 금메달 딴 거(브\*\*)

#노력충은 재능충을 이기지 못함 크... 그 냥 빌린 장비로 재미로 탄 건데 금메달이라 니 노력충들 멘탈 오지게 힘들겠네(ho\*\*\*

#이변의 주인공이구만ㅋㅋ 스노보드 선수 가 알파인스키에서 금메달을 따다니... 이건

#### 대박 (드\*\*\*)

#스키 빨리 끝내고 스노보드 타러 가야지 했을 텐데~ 진짜 빨리 끝내버리네ㅎㅎㅎ ㅎ 스노보드 사랑이 금메달 선물을 주네 (s

#이거 비유하자면 맥그리거가 복싱으로 메 이웨더 이긴 격이다 ㅋㅋㅋㅋㅋ(fl\*\*\*)

#### ●COLD: 쇼트트랙 동메달 서이라

#비난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경기를 펼친 건 사실이다. 코치들도 그렇고 작전도 그렇 다. 선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됨. 5명중 2명이 우리나라 선수인데 이건 잘못 돼도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성\*\*\*\*\* \*\*\*)

#양보하라니ㅋㅋ 정신 나간 인간들 많네ㅋ 
 = (0)\*\*\*\*

#양보를 하라는 게 아니다 임효준 마저 길 막을 정도였냐가 문제인거다 알겠냐 (no\*\* \*\*\*\*)

#저만 벤쿠버 때 데자뷰 본 거 같았나요?

#누가 봐도 길막 했는데...그럼 5천만 국민 들 눈이 잘못된 겁니까? 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무\*\*\*)

#불운이라기엔 두 바퀴 내내 막고 있었다. 임효준이 아웃코스로 치고 나오려는 걸 바 깥쪽으로 가서 턱 하니 막는 거까지 중계에 다 잡혔다 (베어\*\*\*) 뉴미디어전략팀



# 이런 양배추즙 처음입니다

저온원심박막농축으로 맛까지 편안한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

원산지: 양배추착즙액(양배추: 국산),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 국산) 시과농축액(시과:국산),케일농축액(케일:국산),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무우농축액(무:국산), 창출진피혼합추출액(창출, 진피:국산), 매실농축액(매실:국산)



###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 | 저온원심박막농축 기술로 잡았습니다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과 냄새는 양배추에 열을 가할 때 발생 하는 디메틸설파이드가 그 원인입니다. 〇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는 저온원심박막농축 기술을 이용, 35~50 도수준의온도에서원심력으로 농축해양배추가열에 노출되 는시간을 최소화하여 양배추즙의 불편한 맛을 잡았습니다.

# 2 국내산 사파파 테르트 8 액상과당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고

口한뿌리맛있는양배추&브로콜리는액상과당을전혀넣 지않고 대신 국내산 사과와 매실을 넣어 더욱 먹기 편 한 맛에 안심까지 더했습니다. 저온원심박막 농축으로 한 벤 시과와매실로또한번!그동안역하고비린맛때문에포 기하거나 시도조차 못하셨던 분들께 양배추즙의 맛과 목넘 김의 새로운 처원을 선물합니다.

# | 양배추와 함께 창출, 진피를 3 함께 담아 속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에는 양배추와 더불 어편안한속에 도움이되는 부원료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옛고서에서 속을 다스리는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창출 과진피까지 더해 속을 더욱 편안하게 지켜줍니다.

## 100% 제주산 무농약 양배추 사용! 4 CJ가 만드니까 더욱 안심입니다

CJ 한뿌리 맛있는 양배추 & 브로콜리는 100% 제주산 무 농약 양배추를 사용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껏 재배한 양배추만을 엄선한 것은 물론, 함께 사용된 부원료까지도 모두 100% 국내산이라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드셔 보세요!

코 막을 필요 없이, 찡그릴 필요 없이 기분 좋게! 상온에서 편안하게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더욱 맛있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팩, 맛있게 쭉들이키며 상쾌한 시작

( ) 잠들기 전, 부담 없이 편안한 1팩 [3]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 2팩씩!

☑ 불규칙한 식습관 비쁜 현대 직장인들 ☑ 매운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 ☑ 양배추 특유의 향과 맛을 꺼려하셨던 모든 분들 ☑ 양배추즙을 이제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 집에서 일일이 만들어 드시기 귀찮으신 분들

# 👉 고민 끝! 든든한 한뿌리 양배추를 선택한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좀 심해서 잘 못 먹었는데 여기 제품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침, 저녁 공복에 한 봉 씩 먹고있는데 속이 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원래 이런 제품들 맛에 민감해서 먹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건 꾸준히 매일 매일 먹고 있습니다~."

"특유의 양배추 냄새가 안 나고 상큼하고 맛있네요"

